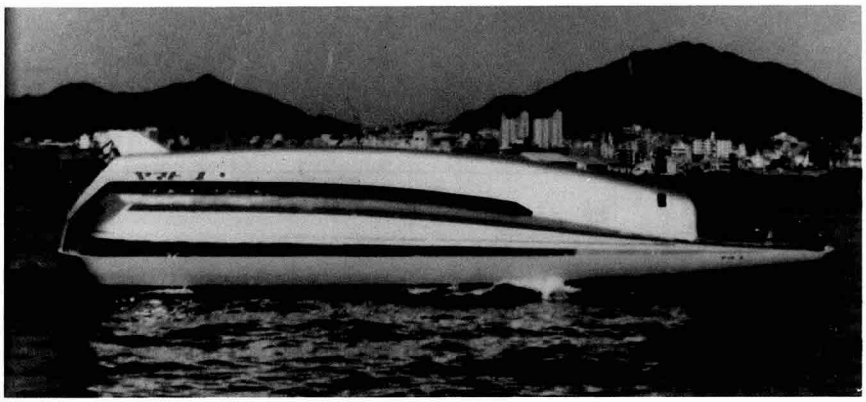
東西南北

超傳導 추진선 국내 개발 추진

– 100노트의 속력으로 승선감 뛰어난 21세기 꿈의 배



국내에도 초전도(超傳導) 추진선이 98년 첫선을 보일 예정으로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중앙연구소와 포항공대 朴秀用(물리학과)교수팀이 공동으로 94년 부터 총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비록 모형선 규모이지만 98년 완료를 목표로 초전도 추진선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전도 추진선이란 선체에 장착된 자석과 전극에 의해 바닷물 속에 자장(磁場) 및 전장(電場)을 형성시켜 상호 반발 작용을 발생하는 전자력을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선박이다.

즉 '자장 속에 전류를 흘리면 자력선 및 전류의 방향과 각각 직각을 이룬 방향으로 전자력이 발생한다'는 「플레밍의 왼손법칙」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소음과 진동이 없으며 프로펠러로 움직이는 배의 한계속도인 50노트를 뛰어넘어 100노트 이상 고속으로 운항이 가능하다.

현재 초전도 추진선 개발에 가장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일본은 이미 87년 초전도 추진 모형선을 제작한 후 이를 토대로 92년 10명이 탑승할 수 있는 185t 규모의 실험선 「야마토 1호」(사진)를 제작 시운전에 성공한 바 있다.

국방부, '97~'01 국방중기계획 발표

– 質 위주의 미래 지향적 국군 육성에 중점

국방중기계획이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건설 소요와 국방정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방재원을 판단하고, 국방사업 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여 연도별·사업별·부대별 및 기능별로 가용재원을 배분한 향후 5개년간의 사업계획이다.

국방중기계획은 전력정비와 운영유지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방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공하며, 국방활동 평가 및 통제의 기준을 제공하는 모든 국방활동의 모체가 되는 문서로 국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연동계획에 의거 매년 작성된다.

'97~'01 국방중기계획은 모든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대비태세를 완비하고 현대전능력을 향상시켜 평화를 지키는 정예 강군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국군을 육성하고, 애착을 가지고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생활여건 개선대책을 발전시켜 군의 사기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나, 정부의 「신경제 장기구상」의 주요지표인 실질경제 성장률 7%, 정부재정 증가율 15%와 수년간의 국방예산 증가율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기간중 국방비 증가율을 연평균 11.6%로 판단한 결과 약 87조원이 가용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전력정비분야는 양보다 질위주의 대북 방위전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전장을 주도할 핵심적 수단인 긴요핵심전력 위주로 계획을 수립해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한자리에 머물렀던 연구개발 투자비율를 두자리수(10%)로 증대 시켰다.

운영유지분야는 사기, 복지 및 처우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실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훈련장 확보 및 우수인력양성, 군수지원 및 시설개선 등을 계획하였다.

그동안 율곡사업이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국방부에서는 이를 불식하기 위해 긴요핵심 전력 위주의 국방중기계획 수립, 1조원 이상 대형사업의 국가정책 사업화, 집행가능한 사업의 엄선으로 예산 이월 방지, 사업별 세부예산 편성과 심의기능 강화, 각종 예방활동과 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 전력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항공기 소재부품 7개사 美 생산 인증 획득

– 1억5천만불 규모의 항공기 소재부품 美에 본격적 수출

삼선공업 등 국내 7개 항공기 소재부품업체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사업(KFP)의 미국측 주관업체인 록히드사로부터 생산인증을 받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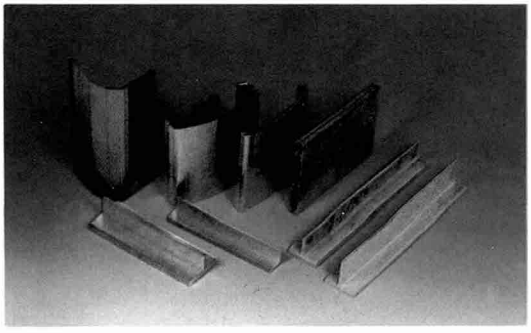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창원 분원은 국내업체가 납품하는 항공기 소재·부품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삼선공업, 한일단조, 삼우금속공업, 천지산업, 서울엔지니어링, 대신금속, 한국로스트왁스 등 7개업체는 생산인증을 획득하게 됨에 따라 KFP사업의 절충교역과 관련, 올해부터 1억5천만불 규모의 항공기 소재부품을 미국에 본격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항공기 부품 수출은 아직 초보적 수준인 국내 항공기 소재 부품산업에 대한 대폭적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의 계기가 되어 항공기 소재부품산업이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이번 인증을 통해 아직 제도적정비와 경험이 미비한 국내 항공기 소재 공인시험 체제의 확립에 기여하고 향후 중형항공기 사업과 같은 국산항공기의 시험평가 체제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선공업이 생산하는 항공기 부품



「율곡」→「방위력 개선」으로…

국방부는 '96년 1월 1일부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율곡」, 「전력정비」 용어 사용을 중지하고 「방위력 개선」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율곡」사업은 율곡 이이선생의 유비무환 정신을 계승하여 자주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뜻으로 '74년부터 전력증강사업의 가명칭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부정비리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전력정비」는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다 평화 지향적이며 장차 지속적으로 사용가능한 용어인 「방위력 개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방위력 개선」의 의미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 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정예화, 효율화, 질적 향상을 기하는 의미이다.